군산미군기지민항사용료인상안철회를위한
시 민 모 임

집행위원장 : 최 종수 신부
(우) 573-060 전북 군산시 월명동 2-1 (0654) 446-4122

문서번호 : 시민모임 97 - 9 - 1호
시행일자 : 1997. 9. 23.
수 신 : 김 동 진 국방부장관
140 - 701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
경 유 : 국방부 군수국 군수협력과 서명상 대령
제 목 : 군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의 재협상에 관한 군산시민모임의 입장

---

1.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 진행중인 군산미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의 재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전달해야만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 한미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협상에 임하시는 귀하와 국방부 군수국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배부처 : 청와대 민원실, 국회의장,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신한국당 대표, 자유민주주의연합 총재, 민주당 총재, 전라북도 지사, 군산 시장, 군산신한국당을지구당 강현욱의원, 군산새정치국민회의갑지구당 채영석의원, 전라북도 도의회의장, 군산시 시의회의장, KBS방송국 편집국장, MBC방송국 편집국장,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국일보 편집국장, 중앙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전북일보 편집국장, CBS방송국 편집국장,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대한항공 사장, 아시아나항공 사장, 주한미 대사, 군산미군 제8비행대대.

붙임. 공개의 글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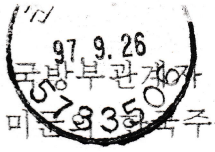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안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대표
오충일목사(군산북음교회) 문정현신부(오룡동성당) 문재곤스님(관음사 주지)

참여단체
개정간호대총학생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대총학생회 군산사랑청년회 군산YMCA 군산YWCA 군산불교신도연합 군산청년회의소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민중사랑실천연합 (사)자연보호협의회군산시지부 새시대노동자회 새정치국민회의군산을지구당 푸른군산생활협동조합 전교조군산지회 전북대총학생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교우회 청학야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군산인권위원회 호원대총학생회 (총 23단체)

붙임1

국방부 군수국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개의 글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국방부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0여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미군주둔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질서에 관한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양국의 이해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국방부와 미군측간에 진행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의 재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군측의 인상요구안중 활주로 사용료 매회 이,착륙시의 $60을 1천 파운드당 $1,75로의 인상안과(이는 전체적으로는 3-4배의 인상 요구), 활주로 보수유지비 25%에서 50%로 인상요구안(지난 1년분 7억 2천만원을 요구)은 동등한 주권국으로서의 한미양국의 상호신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임대료에 의해 미군이 철수된 필리핀, 1998년까지 임대기간이 확정된 오스트레일리아, 임대료지불과 더불어 올해 재임대계약이 된 일본의 오끼나와등 타국의 미군주둔의 사례와 비교해 볼때, 전국1억여평의 땅을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국민의 희생과 양보에 기초한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항사용에 관해 자국의 이익만을 강변하는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주권국가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를 군산시민은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주한미군이 누리는 특혜에 비추어 볼 때, 미군측의 인상요구안중 활주로 사용안과 활주로 보수유지비의 인상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길 바랍니다.
2.민항의 증편이나 시간 배정이 미군측의 작전에 큰 지장이 없다라면 한국민의 편의를 위해 조정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를 기초로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한,미 상호우호협력관계가 발전되리라 확신하며 우리군산시민은 한,미관계의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협상에 임하는 귀하와 국방부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7. 9. 26.

군산미군기지민항사용료인상철회를위한시민모임
(군산시 월명동2-1 군산YMCA 전화446-4122)

